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024.10.

CEPA Insight

- 인도 정부, 농업 개발 이니셔티브 통합 계획 발표
- 인도 증시 '접수'...현대차, 기업가치 26조원
-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한계점

■ 인도 정부, 농업 개발 이니셔티브 통합 계획 발표

- 지난 10월 3일, 인도는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농업 개발 정책을 '라슈트리야 크리시 비카스 요자나(RKVY: Rashtriya Krishi Vikas Yojana)*와 '크리쇼나티 요자나(KY: Krishonnati Yojana)**라는 두 개의 농업 이니셔티브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인도 정부에 따르면, 동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기 위해 총 1조 1,321억 6,100만 루피(약 20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집계했으며, 인도 중앙 정부가 6,908억 8,980만 루피 (약 12조 6,000억 원)를 부담하고 주정부가 3,223억 2,630만 루피(약 5조 9,000억 원)를 출 원할 것으로 알려짐
 - * 2007년 인도의 농업의 현대화와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농업 개발 프로그램
 - ** 2017년 인도 내 지역 단위별 농업 개혁 프로그램을 통합한 이니셔티브로, 농업의 생산성 증진, 농업 기반의 경제 성장 모색, 농업종사자들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함
- 농업 역량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인도 정부는 RKVY 이니셔티브에 약 5,707억 4,720만 루피(약 10조 4,000억 원)를 투입해 자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고, KY 이니셔티브에 약 4,424억 6,890만 루피(약 8조 1,000억 원)의 자원으로 자국의 식량 안 보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함. 또한, 상기 이니셔티브의 시행 주체는 주정부이며 각 지역의 농업 현황에 맞는 포괄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함.
- 인도 연방 정부, 농업 발전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승인. 자국의 종자 생산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약 1,010억 3,000만 루피(약 1조 8,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승인함. 또한, 철 도 산업계 종사자에 대한 약 202억 8,570만 루피(약 3,700억 원) 규모의 보너스 지급을 승인 한 바 있음 (출처: AIF 2024.10.07.)

■ 인도 증시 접수. 현대차 기업가치 26조원

- 현대차 인도법인이 오는 22일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옴.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 인도법인이 자사 기업가치를 190억 달러(약 25조6천억원)로 보고 전체 지분의 17.5%를 공개해 33억 달러(약 4조5천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7일 인도 증시 규제 당국에 보완된 서류를 한 차례 더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다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업공개 규모나 기업 가치, 상장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임.
- 현대차는 지난 6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IPO 관련 예비서류(DRHP)를 제출, 인도법인 지분을 최대 17.5%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힘. 신주발행 없이 보유 지분을 내놓는 공개 매각 방식. 현대차의 기대대로 될 경우 이는 인도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됨. 기존 기록은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25억달러(약 3조4천억원)를 조달한 사례.
- 현대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했으며 1998년 타밀나두주(州) 첸나이 공장에서 첫 모델 싼트로를 양산.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자, 핵심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차는 인도에서 매출 기준으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 (출처: 한국경제 2024.10.05.)

■ 14억 인구 대국 인도의 한계점

- 인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14억 인구 중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만 약 10억 명. 이 중 3억3,000만 명은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음.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6%는 농업에 종사. 인도 정부는 젊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에 철저하게 실패.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산업 구조를 다져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섬유, 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량이 떨어지는 중공업 육성에 사활을 걸음. 일할 사람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함. 공교육 제도는 부실했고, 만연한 성차별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함. 인도의 노동 경쟁력은 처음엔 중국에, 그다음엔 인구가 1억 명이 안 되는 베트남에, 방글라데시에 차츰 밀림.
- 모디 교수는 "중국인들이 150개를 만들 수 있는 자원으로 인도 기업들은 100개만 생산한다"며 "인도 당국은 첨단 기술이 필요없는 노동집약적 산업조차도 기본적인 읽기와 산술능력을 습득하고 직업윤리를 갖춘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함. 인도 경제의 성장이 지속되기 쉽지 않은 근본 이유로 모디 교수는 "도덕성의 붕괴"를 꼽음.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의 발전을 중시해야 된다고 믿는 공공 윤리가 부재"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만연. 대학은 등록금만 받고 학위를 남발하고 재벌은 정치권과 결탁해 정부 소유은행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끌어다 씀. 아무리 교육기관의 설립에 돈을 쏟아부어도 글로벌 경제가 요구하는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춘 인도 학생은 전체의 15% 수준. 모디 교수는 "교육, 보건, 사법 제도, 환경 등 공공재를 무시한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다"며 "도덕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책임 의식이 아마도 (인도 경제 번성의) 유일한 가능성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함. (출처: 한국일보 2024.09.28.)